

일본 SkyDrive, SD-05 시속 100km 비행 성공으로 안전 인증 및 상용화 기반 확보

해당국가	일본	기관(기업)	SkyDrive	동향분야	기술	국토교통 기술분류	항공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SkyDrive는 전기 비행체 SD-05의 시속 100km까지 안정적으로 비행시켜 상용화 기반을 확보

- SkyDrive는 SD-05를 시속 100km까지 안정적으로 비행시켜 도심 단거리 운항에 필요한 비행 성능과 기체 안정성을 입증
 - SkyDrive는 여러 차례 고속 비행 시험에서 SD-05를 시속 100km까지 비행시켜 도심 단거리 이동에 적합한 성능을 확인
 - 이번 시속 100km 비행을 통해 고속 비행 성능과 기체 안정성을 검증하고 안전 인증 절차와 2028년 상용화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
- SkyDrive는 이번 고속 시험에서 기체와 핵심 장치가 시속 100km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실제 비행으로 확인하고 고속 운항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증
 - 이번 고속 시험에서 SD-05는 시속 100km 비행에서도 기체 안정성을 유지하고 조종 및 방향 전환 성능이 설계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구현됨을 확인
 - 추진장치와 비행 제어장치, 전자 계기 장비가 고속 비행에서도 서로 연동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전체 시스템의 운용 성능을 검증

□ 실제 비행에서 얻은 데이터가 설계 단계의 예측값과 거의 일치해 도심형 기체 설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고 후속 개발 추진 기반을 확보

- 고속 비행에서는 공기역학적 하중과 진동 등 다양한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실제 비행을 통한 검증이 필수이며, 새롭게 개발한 SD-05도 실증 시험을 수행
 - 고속 비행에서는 공기 저항과 진동, 기체 하중, 조종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제 비행을 통해서만 비행 특성을 확인이 가능
 - 기존 비행기·헬기와 구조가 달라 기존 항공기 시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워 JAXA 풍동시험과 SD-03 비행시험을 통해 기체 성능과 비행 특성 데이터를 축적
- 시험 결과가 설계 단계의 예측값과 거의 일치해 후속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확보하고 기체 설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입증
 - 해당 시험에서 기체의 안정성과 조종성, 구조 안정성 및 각 장치 성능이 예측값과 일치해 후속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
 - 날개 없이 여러 개의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구조를 적용해 도심 환경에서 수직이착륙이 가능하며 제한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기체 구조를 적용

※ 출처 : SkyDrive(2026.06.24), SkyDrive Reaches 100km/h Milestone